



1

인터프로 인디고 디지털센터 오픈식 개최 인디고 10000 총무로 첫 도입 “한 장의 인쇄물도 최선”

(주)인터프로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김상희)은 지난 7월 16일 오후 3시 서울 필동주민센터 2층에서 인터프로 인디고 디지털센터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인터프로 애플리케이션 및 장비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맞은편에 위치한 인터프로 인디고 디지털센터로 이동해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후가공 솔루션을 시연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인터프로 인디고 디지털센터’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김상희 대표이사, 한국HP 프린팅 퍼스널 그룹 그래픽 솔루션 비즈니스 김병수 상무,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순석 동일정보인쇄(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인쇄인 약 50여명이 참석해 개업을 축하했다.

인터프로 인디고 디지털센터에 대한 설명회에서 한국HP 김병수 상무는 “대한민국 인쇄의 메카 총무로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가 첫 선을 보이게 됐다. 긴 장정이었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감회가 더 새롭다”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또 “사실 총무로에서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가 설치된 것에 대해 격정과 기대가 동시에 든다.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가 총무로 인쇄시장에 변혁을 가져오길 바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디지털 인쇄시장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대표이사는 인터프로 소개 및 감사인사에서 “1993년 사진재판업으로 시작한 인터프로는 1997년 필름출력기, 2005년 CTP 시스템을 도입하며 인쇄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성수동 지점을 포함해 두 곳에 출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를 총무로 최초로 도입했다”라고 인터프로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김 대표는 “처음에는 인디고 7600을 도입하려고 고민했는데, 드루파 2012에서 인디고 10000 디지털프레스를 보고 이 장비를 도입해야 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라며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를 통해 경비는 절감하고 생산성은 향상되길 기대한다. 단 한 장의 인쇄물도 최선을 다해 작업할 것이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현수 한국HP 그래픽 솔루션 비즈니스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 차장이 HP 인디고와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박현수 차장은 “인디고는 2001년 10억 임프레션이던 클릭이 2013년 약 22배 성장한 220억 임프레션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디지털인쇄시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는 전집, 일대일 맞춤 가변화 상품이 가능한 학습지·자동차 영업용 팸플릿·마케팅 포스터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포스터의 경우 단 1장도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량인쇄시 오프셋인쇄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인쇄물의 경우 발색이 좋아 오프셋 인쇄보다도 품질이 좋다”고 강조했다.

탁월한 생산성·다양한 응용력의 ‘HP 인디고 10000’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는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며 특히 다양한 인쇄분야에 접목가능한 75cm 포맷을 자랑한다. 용지 사이즈는 B2 크기로 최대 750×530mm까지 가능해 중 소형에서부터 대형 출력물까지 대부분의 상업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다. 즉 포켓 폴더, 6페이지 브로슈어, 포스터, 대형 레이플랫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쇄물을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65~450g까지 코팅, 비코팅, 메탈, 재활용, 특수용지 및 포장용 상자 등 다양한 두께의 종이에 작업할 수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생산성도 향상돼 시간당 3450매, 생산성강화모드(EPM)에서

는 4600매를 인쇄할 수 있어 한달에 200만장 이상의 컬러인쇄를 작업할 수 있다.

Cyan, Magenta, Yellow, Black 등 기본 컬러는 물론 Orange, Violet, Green이 추가된 7개의 잉크 스테이션을 사용해 오프셋인쇄물 수준의 인쇄품질을 자랑한다. HP 인디고 인디크롬 기술은 선명한 이미지와 통일된 인쇄물 광택을 제공하며, 품질 자동화 시스템은 수천~수만 장에 이르는 인쇄물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증한다.

인터프로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위해 일체의 후가공장비도 함께 도입했다. i780재단기를 비롯해, GMP 코팅기 PROTOPIC 540, PUR 무선제책기 WEPUR BINDER, 무선제책기 GS5310A, 중철제책기 DBM 150, 듀플로 오시·접지기 DC440, 트윈링 제책기 SW2030 등 인쇄후가공 솔루션 일체를 도입했다.

김상희 대표이사는 디지털인쇄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인쇄업계는 빠른 시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재편됐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업체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었다. 나 역시 오랜시간 동안 출력시장에 종사해 왔지만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디지털인쇄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인디고는 A3용지로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했다. 이제는 용지크기가 B2로 확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무로에 있는 많은 디자인실·기획실과 협업하면서 함께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1. 인터프로 인디고 디지털센터 오픈식에서 귀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2.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시연 모습
3. 인사말을 하는 김상희 (주)인터프로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4. 인사말을 하는 김병수 한국HP 상무 5. 인터프로 디지털센터 건물 전경